

‘광주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여야 정쟁으로 확산

보훈부장관 조성 철회 요구·행안부까지 나서...국힘은 ‘간첩’ 발언까지 강 시장·민주당 “밀양 김원봉·통영 윤이상 공원 두고 왜 광주만 공격하나”

광주시가 48억원을 들여 조성중인 ‘정율성 역사공원’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의 여야 정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까지 나서 광주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광주시에 대한 감시도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4일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보수단체와 보수정당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번 논란은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난 2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식적으로 공원 조성 철회를 요구하며 정치권의 정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 장관은 SNS를 통해 “정율성은 1939년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고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인 ‘팔로군 행진곡’(현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을 작곡한 장본인”이라며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

기 위해 앞장섰던 사람을 우리 국민 세금으로 기념하려 하는 광주시의 계획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율성은 해방 이후 북한으로 귀국해 조선 인민군 구락부장을 지냈으며, 그가 작곡한 조선인민군 행진가는 한국전쟁 내내 북한군 사기를 북돋았다”고 지적하고 “공민 가족에게 피눈물 내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 시내 곳곳에는 일부 보수 정당이 정율성 역사공원 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1인 시위도 벌어지고 있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의 모친인 김오복 여사도 강 시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보훈 가족에게 피눈물 내게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업이다”면서 중단을 촉

구했다.

이에 강시장 광주시장은 23일 SNS를 통해 “논란을 멈추고 평가와 공과는 역사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광주 호남의 자랑스러운 인물로 고봉기대승, 독립운동가 서재필 박사, 남중화 대가 허건, 소리꾼 임방울 명창, 임진왜란 영웅 고경명 장군, 광주학생독립운동 참여 학생들, 5·18 영령, 연평도 포격전 당시 전사한 서정우 하사를 언급한 뒤 “정율성 선생은 그 아버지와 5남매, 친가와 외가 모두 독립운동을 한 집안”이라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이 문제는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150억원을 투자한 밀양 ‘김원봉 의열기념공원’과 123억원을 투자한 통영 ‘윤이상 기념공원’에는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이 공원들도 문을 닫자는 말씀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음악가 정율성 동요제를 이어온 것은 18년째고 정율성 공원은 6년 전 계획해 올해 연말 완성 예정”이라며 “더 이상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여야도 설전을 벌였고, 특히 국민의힘은 6년 전 계획돼 추진된 사업을 ‘반(反)국가적 테러’로 규정하며 취임 1년밖에 되지 않은 강시장 광주시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광주시와 관계자들은 공산주의 정신을 기리고 싶은 간첩이나는 국민의 비판이 뜨겁다”면서 사실상 광주시와 관계자들을 간첩으로까지 빗대는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도 성명을 내고 “6.25 남침 전쟁범죄를 일으킨 김일성의 부역자를 기념하고 추모하겠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 시장은 더 이상 역지를 부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이 사업의 부당성과 위험성을 인정하고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끝내 ‘침략자 역사공원’을 고집한다면 지방자치 행정 전반을 다루는 행안위 차원에서도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와 여당의 맹공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광

주시당 위원장이자 역사공원 추진 지역 국회의원인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은 “합일운동가이자 음악가였던 정율성을 공산주의자로 낙인찍어 붙은 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매카시즘적 행태”라고 맞섰다.

이 의원은 “난데없이 정율성 기념사업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본심에는 호남 차별과 중국혐오 감정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해묵은 이데올로기로 이웃 나라를 배척하고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 출신인 정 선생은 의열단 소속으로 비밀항일운동을 하는 동시에 음악가로서 재능을 살려 항일 구국 예술활동을 해 온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다.

그가 작곡한 수 많은 항일 가요 중국 인민해방군 가인 ‘팔로군 행진곡’, 중국의 아리랑 격인 ‘연안송’ 등이 유명해지면서 정 선생은 중국의 3대 음악가로 추앙받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하라” 광주지역 환경단체 회원들이 24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계획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광주시민권익위, 뽕뽕다리 시비 설치 권고

‘광주온(ON)’ 시민제안 4건 실행방안 마련

광주시민권익위원회는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44차 전담위원회’를 개최해 시민이 제안한 뽕뽕다리 시비(諱碑) 설치 등 4건의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광주시에 정책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책권고 의제는 시민이 시민광장 광주온(ON)을 통해 제안한 뽕뽕다리 시비 설치, 중앙공원 1지구 공동주택 진출입로 관련 추가 권고, 호남대 학교 광산캠퍼스 22번 국도 신설, 광주FC 축구 전용구장 안전성 확보 관련 등 4건이다.

‘뽕뽕다리 시비(諱碑) 설치’ 제안은 광주시민의 애환이 서린 뽕뽕다리에 관련 시비를 설치해 과거 발산마을과 일신방직공장의 추억을 공유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권익위는 해당 제안 사업을 서구 발산마을 관련 도시재생사업인 스토리텔링 길 발굴 운영사업에 포함해 줄 것을 권고했다.

‘중앙공원 1지구 공동주택 진출입로’ 건은 주민 대표, 시행사, 전문가, 광주시 등이 참여한 현장간담회를 통해 진출입로 위치변경 협의를 이끌어 낸

모범적인 정책사례로, 시민권익위는 추가로 현재 급화로 방면으로 계획된 진출입로의 2차로를 4차 도로로 확장하는 안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호남대 광산캠퍼스 22번 국도 신설’ 건에 대해선 현재 도로개설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교통 신호체계 개선 등 시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발주 예정인 도로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해당 제안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광주FC 축구 전용구장 안전성 확보’ 제안은 구조안전진단 및 구조 보강공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홍보해 시민 불안을 해소하도록 했다.

광주시민권익위원회의 정책권고를 받은 광주시 소관부서는 30일 이내에 실행계획을 수립해 위원회에 제출해야하며, 실행계획과 추진상황을 광주온(ON)을 통해 알리고 완료될 때까지 모니터링 관리해야 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최대 230만원 환급

국세청 모바일 신고 서비스 제공

국세청이 배달라이더·대리기사·간병인·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찾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모바일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4일 밝혔다.

안내 대상은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신규사업자 기준)인 단순경비율 적용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간 인적용역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

다.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와 방문 판매원, 간병인, 학원강사 등이 인적용역 소득자에 해당한다.

회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는데 이때 먼저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환급받을 수 있다.

이들이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세금은 2220억원에 달한다. 1인당 환급액은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30만원까지로 개인 소득 등에 따라 다르다.

/연합뉴스

주택연금 가입자 대출한도 확대

주택금융공사(HF)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 완화와 함께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주금공은 주택연금 활성화와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담보보후연금보조규정 및 주택담보보후연금보조약관 개정안을 사전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담보주택 요건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주택연금 총 대출한도 역시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주금공은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12일 이후 신청건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인도 무인 탐사선, 세계 최초 달남극 착륙

인도의 무인 달 탐사선이 23일(현지시간) 달 남극에 처음으로 착륙하면서 앞으로 전 세계 달과 우주 탐사 경쟁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을 전망이다.

뉴욕타임스와 가디언 등 외신을 종합하면 이번 인도 무인 탐사선의 달 남극 첫 착륙으로 인도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달 탐사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인도의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는 이날

오후 6시 4분께 달 남극에 사상 처음으로 착륙했다. 사람이 만든 기기가 달에 발을 내딛던 것은 미국, 옛 소비에트연방, 중국에 이어 인도가 네 번째다. 인도는 21세기 들어 중국에 이어 달 표면에 우주선을 온전하게 내린 두 번째 국가로서 높은 과학 역량을 인정받았다.

영국 레스터대학교의 마틴 바스토 천문학과 교수는 “달의 극지 착륙은 적도 착륙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땅끝농협 농기계서비스센터 임대 안내

전남 해남군 송지면에 위치한 땅끝농협 농기계서비스센터를 아래와 같이 임대하고자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연락바랍니다.

임대시설 개요	· 주소 : 전남 해남군 송지면 달마로 19(미야리 219-10) · 면적 : 건물(369㎡), 대지(2,584㎡) · 임대시설물 : 목적물 내 건물 및 기계·공구·비품 일체
임대조건	· 임대기간 및 임대료 : 상호 협의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상 농기계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신용정보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농기계수리 서비스업 경영자 우대 · 제출서류 : 신분증, 자격증사본, 주민등록등(초)본 · 신청방법 : 땅끝농협 총무계로 직접 방문 신청
문의사항	· 땅끝농협 총무계로 문의 (전남 해남군 송지면 산정1길 80, ☎ 061-533-2470)

땅끝농업협동조합